

첫 번째 선정(初禪)의 의의와 위상에 대한 고찰

임 승택(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I. 시작하는 말

위빠싸나를 행해 나갈 때의 심리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위빠싸나는 ‘첫 번째 선정(初禪)’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행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선정’을 걸쳐 ‘아무 것도 없는 경지(無所有處)’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¹⁾

더불어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경지(非想非非想處)’와 ‘지각과 느낌의 소멸(想受滅)’의 상태에서는 위빠싸나를 행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연후에(vuṭṭhahitvā), 돌이켜 관찰하는 것(samanupassanā)²⁾이 가

1) 임승택,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불교학연구회 제13차 학술발표회 자료집』, 불교학연구회, pp.13-15 참조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위빠싸나 수행은 첫 번째 선정(初禪)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에서는 5가지 수행의 장애(五蓋)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까닭에 ‘있는 그대로의 것(yathābhūtam)’을 여실히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위빠싸나는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한 연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임승택, 「마음지킴(sati)의 위상과 용례에 대한 재검토」, 제7기 구산논문 발표회 자료집, pp.9 이하 참조

‘5가지 장애(五蓋)’와 ‘위빠싸나 수행’ 그리고 ‘첫 번째 선정’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김재성 선생의 반론과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2) 선행 연구물에서 필자는 ‘samanupassanā’의 동사형인 ‘samanupassati’에 대해 ‘돌이켜

능하다”는 입장을 경전의 근거에 입각하여 피력하였다. 거기에는 『Anupada-sutta』와 『Paṭisambhidāmagga』에 나타나는 몇몇 구절들이 전거가 되었다.

사마타(止)와 위빠싸나(觀)³⁾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위빠싸나를 행해 나갈 때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조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점이 명확해 질 때 그들 양자의 관계가 동시적인가 혹은 차례적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止觀兼修’라든가 ‘定慧雙修’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전통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보다 확실한 경전적 근거가 제시된다고 할 수 있겠다.

사마타를 완성한 연후에야 위빠싸나가 가능하다는 견해는 ‘사마타 ⇒ 위빠싸나의 차례적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에 선정의 예비적 단계에서부터, 혹은 선정의 상태 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는 견해는 ‘사마타 ⇔ 위빠싸나의 동시적 입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바로 후자의 견지에서 「

생각하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이 용어를 ‘들어켜 관찰하다’로 일괄·재번역한다. 이 용어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제IV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3) 여기에서 사마타(止, samatha)와 위빠싸나(觀, vipassanā)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Paṭisambhidāmagga』(vol.2, p.172 참조)에 따르면 사마타는 “들뜸(掉擧)과 들뜸에 수반된 번뇌와 구성요소들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uddhacce ca uddhaccasahagatakilese ca khandhe ca na kampati na calati na vedhātī)”으로 설명되며, 위빠싸나는 “무명과 무명에 수반된 번뇌와 구성요소들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avijjāya ca avijjāsahagatakilese ca khandhe ca na kampati na calati na vedhātī)”으로 언명된다. 따라서 사마타는 ‘들뜸을 가라 앉히는 행법’으로 그리고 위빠싸나는 ‘무명을 제거하는 행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더불어 Paṭisambhidāmagga에서는 사마타에 대해 한역어 ‘禪’과 ‘定’에 상응하는 ‘jhāna’와 ‘samāpatti’의 2가지를 그 영역으로 하며, 위빠싸나는 무상을 따라가며 보는 법(無常隨觀, aniccānupassanā)이라든가 고통을 따라가며 보는 법(dukkhānupassanā)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마타는 ‘물질현상에 속한 4가지 선정(色界四禪)’과 ‘물질현상이 없는 4가지 선정(無色界四禪)’을 포괄하며, 위빠싸나는 ‘18가지 따라가며 보는 법(十八隨觀)’을 의미하게 된다. Ps. vol.2, pp.172-173 참조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기술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필자의 논지를 다시 요약하면, “사마타와 위빠싸나는 상호간에 회통이 가능한 원리를 지니며, 거친사유(尋)를 수반하는 첫째 선정의 상태에서 가장 온전한 형태의 위빠싸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⁴⁾ 본고는 그러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첫 번째 선정(初禪)’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이 지니는 수행론적 의의와 위상을 점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앞서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 설득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야기된 여타의 논의에 대해서도 나름의 갈무리를 짓고자 한다.

II. 삼매의 의의와 체계

주지하듯이 ‘있는 그대로의 것(yathābhūtam)’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 즉 삼매가 요구된다. 수행도의 과정에서 삼매(samādhi) 혹은 선정(jhāna)⁵⁾의 체험이 필요한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다. 니카야(Nikāya)에서도

4)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앞의 발표문, pp.16-21 참조.

5) 여기에서 삼매(定, samādhi) 혹은 선정(禪, jhāna)이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삼매의 어원은 ‘sam-ā√dhā(집중하다)’이며, 선정의 어원은 ‘√dhyai(숙고하다)’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기 다른 유래를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藤田宏達에 따르면 이들 양자는 의미상의 구분이 없이 혼용된다고 한다. 또한 본 고의 진행과 더불어 확인되었지만 jhāna는 samādhi의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jhāna와 samādhi는 ‘들뜸을 가라 앉히는 행법’으로서 사마타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재분류할 수 있겠다. 한편 한역어 ‘禪定’에 상응하는 ‘jhāna-samādhi’ 혹은 ‘jhāna-samāpatti’는 원어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한역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jhāna(禪)와 samādhi(定)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던 관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jhāna-samāpatti’는 色界禪(jhāna)과 無色界定(samāpatti)을 통칭할 때 사용되곤 하는 말이다. 본 고에서는 번역의 편의상 samādhi는 삼매로 그리고 jhāna는 선정으로 구분하여 번역한다. 藤田宏達, 「原

‘마음의 안정’ 즉 삼매를 이루는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통찰의 지혜가 발생한다고 기술한다. 아래의 인용문이 바로 그 전형이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을 지어다. 비구들이여, 삼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다(pajānāti).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떠한가? 눈(眼)에 대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시각대상(色)에 대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눈의 의식(眼識)에 대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눈의 접촉(眼觸)에 대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즐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느낌(受)에 대해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6)

인용문은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으로, 『Dhammapada(法句經)』의 “혜가 없는 이(apaññassa)에게 선정은 없고 선정을 행하지 않는 이(ajhāyato)에게 혜는 없나니 선정과 혜가 함께 있을 때 그는 실로 열반 가까이에 있다”⁷⁾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통찰의 지혜(paññā)’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삼매의 상태(samāhito)’라든가 ‘선정의 상태(jhāyato)’가 수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삼매 혹은 선정이라는 테마는 단순히 사마타(止)의 영역에 한정

始仏教における禪定思想, 『佛教思想論叢』, 山喜房仏書林, 昭和 47年, pp.297-299 참조

- 6) “Samādhiṃ bhikkhave bhāvētha, samāhito bhikkhave bhikkhu yathābhūtaṃ pajānāti. Kīṃca yathābhūtaṃ pajānāti? Cakkhuṃ aniccan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rūpā aniccan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cakkhuvīññāṇaṃ aniccan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cakkhusamphasso anicco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yampidaṃ cakkhusamphassapaccayā uppajjati veda-yitaṃ sukhaṃ vā dukkhaṃ vā adukkhamasukhaṃ vā tampi aniccanti yathābhūtaṃ pajānāti...” SN. vol.4. pp.80, 144; MN.vol.1.pp.61cf.; MN. vol.3.pp.114-115 cf.; SN. vol.5. p.414 cf.
- 7) “Natthi jhānaṃ apaññassa paññā natthi ajhāyato, Yamhi jhānaṃ ca paññā ca sa ve nibbānaṃsantike.” Dhammapada, 372계송,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앞의 발표문, p.7 재인용.

된 협소한 문젯거리가 아니다. ‘통찰의 지혜’란 다름 아닌 위빠싸나(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매의 문제에 대한 조명은 곧 위빠싸나 자체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중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삼매 혹은 선정에 대해 알아본다. 니카야에는 ‘3가지 삼매(三三昧)’·‘4가지 선정(四禪)’·‘8가지 선정(八禪定)’·‘9가지 선정(九次第定)’ 등 여러 유형의 분류가 나타난다. 이들 모두는 삼매의 상태를 깊이 따라 일련의 체계로써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들 중에서 필자는 ‘3가지 삼매’와 ‘4가지 선정’을 중심으로 본 소절을 진행하고자 한다.⁸⁾ 먼저 전자에 대해서부터 알아본다.

3가지 삼매(三三昧)가 있다.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를 지닌 삼매(有尋有伺三昧)·거친사유는 없고 미세사유만 지닌 삼매(無尋唯伺三昧)·거친사유도 미세사유도 없는 삼매(無尋無伺三昧)가 [그것이다].⁹⁾

이와 같은 ‘3가지 삼매’의 체계는 거친사유(尋, vitakka)와 미세사유(伺, vicāra)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들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는 초기불교 이래로 다양하게 해설되어 왔는데, 니카야 내에서는 구체적인 해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¹⁰⁾ 필자는 이들 양 개념의 전반적인 쓰임에 비추어, 전자는 ‘생각(thought)이나 ‘추리(reasoning)’의 뜻으로, 그리고 후자는 ‘숙고

8) 필자는 본 고의 테마로서 ‘첫 번째 선정’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첫 번째 선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3가지 삼매(三三昧)’와 ‘4가지 선정(四禪)’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8가지 선정(八禪定)’이라든가 ‘9가지 선정(九次第定)’ 등 여타의 체계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을 유보한다.

9) “Tayo samādhi: savitakkasavicāro samādhi, avitakkavicāramatto samādhi, avitakkaavicāro sāmādhi.” DN. vol.3. pp.219; DN. vol.3. pp.274; MN. vol.3. pp.162 cf; SN. vol.4. pp.360-362cf. 등.

10) L.S. Cousins, “vitakka/vitarka and vicāra: Stages of Samādhi in Buddhism and Yoga”, 『Indo-Iranian Journal』 35, 1992, p.139 참조

(consideration)’라든가 ‘조사(investigation)의 의미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¹¹⁾

나라다(Nārada)에 따르면, 거친사유(麁)는 후대의 아비다르마(Abhidhamma)에 이르러서 ‘대상을 향해 일으키는 마음작용’ 즉 ‘마음념(作意, manasikāra)’의 의미와 혼용되어, 선정을 낳는 요소의 하나로 정착된 전문술어라고 한다. 더불어 미세사유(伺)도 아비다르마에 이르러 정착된 선정 관련 전문술어로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작용(continued exercises of mind on the object)’의 뜻을 지닌다고 한다.¹²⁾

11) 『Madhupin̄dikasutta』 (MN. vol.1. pp.111-112)에서는 vitakka(거친사유)의 동사형인 ‘vitakketi’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느낀다는 것은 곧 지각한다는 것이고, 지각한다는 것은 곧 사유한다는 것이며, 사유한다는 것은 곧 망상한다는 것이다(Yaṃ vedeti taṃ sañjānāti. Yaṃ sañjānāti taṃ vitakketi. Yaṃ sañjānāti taṃ vitakketi. Yaṃ vitakketi taṃ papañceti)”¹¹⁾; 이 문구는 vitakka의 의미를 추출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sañjānāti(지각하다)는 vedeti(느끼다)와 vitakketi(사유하다)의 중간 단계로, 그리고 vitakketi(사유하다)는 sañjānāti(지각하다)와 papañceti(망상하다)의 중간 단계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용례는 이들의 명사형인 vedanā(느낌, feeling) · saññā(지각, perception) · vitakka(사유, thought, reasoning) · papañca(망상, illusion) 따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후대의 아미담파 문헌에 해당하는 『Saddhammapakāsinī』 (p.80)에서는 이들 거친사유와 미세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해설한다. “거친사유란 ‘사유한다는 것’이며, 거친사유란 ‘사유(thought)’이며, ‘추론(reasoning)’이라 불리우는 그것이다. 그것에 의해 대상 안에서 ‘뻐도는 것’이 미세사유이며, ‘배회하는 것’이 미세사유이며, ‘따라 다니는 것’이라 불리우는 것이 [미세사유이다](vitakketi vitakko, vitakkanarū vā vitakko, ūhananti vuttarū hoti. ārammaṇe tena cittarū vicarati vicāro, vicaraṇarū vā vicāro, anusañcaraṇanti vuttarū hoti).” 이상의 내용을 통해 거친사유(麁)는 특정한 대상에 관련해서 일으키는 ‘생각(thought)이나 ‘추리(reasoning)’ 따위의 마음작용으로, 그리고 미세사유(伺)는 그러한 대상의 안으로 들어가 지속적으로 ‘숙고(consideration)’ · ‘조사(investigation)하는 마음작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12) 이와 같은 아비다르마의 전통적인 해설에 따르면 거친사유는 “별이 꽃을 향해 날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미세사유는 “별이 꽃의 주변에서 뒹뒹거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 Nārada Thera Vājirārāma, A Manual of Abhidhamma, Abhidhammattha-Sarigaha, Yangon: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1996, pp.88-90 참조.

그러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양자는 일찍부터 삼매(=선정)의 깊이를 구분짓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더불어 『Mahāvedallasutta』에 따르면,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는 ‘선정의 요소(禪支, *jhāna-aṅga*)’로서 직접 언급된다. 즉 “존자여, 첫 번째 선정은 5가지의 요소(禪支)를 지닌다. 존자여, 여기에서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한 비구에게는 거친사유(麁)가 있다. 또한 미세사유(伺)·기쁨(喜)·즐거움(樂)·마음의 하나됨(心一境)이 있다. 존자여, 첫 번째 선정은 이와 같이 5가지의 요소를 지닌다”는 경구가 그것이다.¹³⁾ 따라서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는 초기불교 당시부터 선정(=삼매) 관련 술어로서 이미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니카야에 나타나는 용례상으로 볼 때, 거친사유(麁)와 미세사유(伺)는 ‘언어적 현상(語行, *vacisaṅkhāra*)’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쓰임을 보인다.¹⁵⁾ 그

13) “존자여, 첫 번째 선정(初禪)은 5가지의 구성요소(禪支)를 지닌다. 존자여, 이 [가르침 안에서]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한 비구에게는 거친사유(麁)가 있다. 그리고 미세사유(伺)·기쁨(喜)·즐거움(樂)·마음의 하나됨(心一境)이 있다. 존자여, 첫 번째 선정은 이와 같이 5가지의 구성요소를 지닌다(*Paṭhamam kho āvuso jhānam pañcaṅgikam: idhāvuso paṭhamam jhānam samāpannassa bhikkhuno vitakko ca vattati vicāro ca. Pīti ca sukhaṃ ca cittakaggatā ca. Paṭhamam kho āvuso jhānam evam pañcaṅgikanti*)”.

MN. vol.1. pp.294 등.

14) 그러나 선정과 상관이 없이 사용되는 거친사유(麁)의 용례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일반적인 의미의 거친사유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예컨대 MN. vol.1. p.114; MN. vol.3. pp.114; 125; SN. vol.1. p.203; SN. vol.2. p.151; SN. vol.3. p.93; AN. vol.1. p.148; 254; 257 등에 나타나는 바, ‘감각적 쾌락에 의한 거친사유(*kāma vitakka*)’라든가 ‘악의에 의한 거친사유(*vyāpāda vitakka*)’ 따위의 용례가 그러하다. 『Sabbāsavaṣutta』 (MN. vol.1. p.11)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거친사유는 수행의 과정에서 “거부하고 제거하고 없애고 끝장내어 존재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nādhivāseti pajahati vinodeti byantīkaroti anabhāvaṃ gameti*)”으로 설명된다.

15) 예컨대 다음의 문구가 그 전형이다. “그대, 위사키여, 들숨과 날숨은 육체적 현상(身行)이고,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는 언어적 현상(語行)이며, 지각과 느낌은 정신적 현상(意行)이니라(*Assāsapassāsā kho āvuso visākha kāyasaṅkhāro. Vitakkavicārā vacisaṅkhāro. Saññā ca vedanā ca cittasaṅkhāroti*).” MN. vol.1. p.301; MN. vol.1. 296cf.;

런데 이러한 언어적 현상 또한 선정 관련 전문술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2번째 선정(第二禪)에 들어간 자에게는 거친사유와 미세사유에 의한 언어적 현상(語行)이 그친다. 4번째 선정(第四禪)에 들어간 자에게는 들숨과 날숨에 의한 ‘육체적 현상(身行)’이 그친다. ‘지각과 느낌의 소멸(想受滅)’에 들어간 자에게는 지각과 느낌에 의한 ‘정신적 현상(心行)’이 그친다”는 경문이 전형적인 경우이다.¹⁶⁾

이와 같은 니카야의 설명에 따르면, 두 번째 선정(第二禪) 이상의 경지에서는 거친사유와 미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는 삼매를 구성하는 마음요소(*cetasika*)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삼매의 상태에 이르러서는 소멸되는 일종의 과도적 심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삼매 현상 일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니카야에서 언급되는 삼매의 상태는 ‘언어적 분별(*thought, vitakkana*)’이라든가 ‘논리적 추론(*reasoning, ūhana*)’ 따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로써 앞에서 인용한 ‘3가지 삼매’의 체계에서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를 지닌 삼매(有尋有伺三昧)’는 그러한 언어적 의식활동 자체를 자신의 영역에 포함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한편 *Nikāya*에는 ‘4가지 선정(四禪)’에 의한 삼매의 체계가 빈번히 언급된다. 팔정도의 ‘바른 삼매(正定)’에 관련한 해설에서 보여지는 관련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존자여, 바른 삼매(正定)란 무엇인가. 존자여, 이 [가르침] 안에 한 비구가 있

SN. vol.4. pp.217-218, 220, 227, 228 cf. 등.

16) “*duṭṭhājjhānaṃ samāpannaṃ vitakkavicāra vacīsaṅkhārā paṭippassaddhā honti, catuṭṭhājjhānaṃ samāpannaṃ assāsapassāsā kāyasaṅkhārā paṭippassaddhā honti, saññāvedayitanirodhaṃ samāpannaṃ saññā ca vedanā ca cittasaṅkhārā paṭippassaddhā honti*” Ps. vol.1. p.99; MN. vol.1. 296cf.; SN. vol.4. pp.217-218, 220, 227, 228 cf.

어,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롭지 않은 법으로부터 멀어져, 거친사유(尋)와 미세사유(伺)를 지닌, 떠남(離)으로부터 생겨난 기쁨(喜)과 즐거움(樂)이 있는 첫 번째 선정(初禪)을 얻어 머문다. 거친사유와 미세사유가 가라앉아, 안으로 고요해지고, 마음이 한곳에 고정되어, 거친사유도 없고(無尋) 미세사유도 없(無伺), 삼매로부터 생겨난 기쁨(喜)과 즐거움(樂)이 있는 두 번째 선정(第二禪)을 얻어 머문다. 기쁨으로부터 떠나 평정(捨)이 머무는,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을 지녀, 즐거움(樂)을 몸으로 느끼는,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바, ‘평정과 마음지킴을 지녀 즐겁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정(第三禪)을 얻어 머문다. 즐거움이 끊어지고 고통이 끊어져, 이전의 기쁨과 근심이 사라진,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捨)을 통한 마음지킴의 청정을 지닌 네 번째 선정(第四禪)을 얻어 머문다. 존자여, 이것을 바른 삼매라 한다.¹⁷⁾

인용문에 따르면 ‘바른 삼매’란 곧 ‘4가지 선정’을 가리킨다. 더불어 거친사유(尋)와 미세사유(伺)는 첫 번째 선정(初禪)의 단계에서만 존속하는 마음요소이다. 이들 양자는 두 번째 선정(第二禪) 이상의 단계에서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4가지 선정’이라는 삼매의 체계는 거친사유와 미세사유가 사라지고 난 이후의 심리적 상태를 밝히는 데에 비중을 둔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4가지 선정 역시 기술된 순서대로 차례적인 깊이를 지닌다.

앞서 살펴 보았던 3가지 삼매(三三昧)를 여기에서 인용한 4가지 선정(四禪)과 비교하자면,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를 지닌 삼매(有尋有伺三昧)’는 첫

17) “Katamo cāvuso, sammāsāmadhi: idhāvuso, bhikkhu vivi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āṃ pītisukhaṃ paṭhamā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Vitakkavicāraṇaṃ vūpasamā ajjha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 avitakkaṃ avicāraṃ samādhijāṃ pītisukhaṃ du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Pītiyā ca virāgā upekkhako ca viharati. Sato ca sampajāno sukhaṃ ca kāyena paṭisaṃvedeti. Yantaṃ ariyā ācikkhanti upekkhako satimā sukhavihāriti ta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Sukhassa ca pahānā dukkhassa ca pahānā pubbeva somanassadomanassānaṃ atthaṅgamā adukkhaṃ asukhaṃ upekkhāsati pārisuddhiṃ catutth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Ayaṃ vuccatāvuso sammāsāmadhi.” MN. vol.3. p.252; SN. vol.5. pp9-10; DN. vol.2. p.313 등.

번째 선정(初禪)에 상응한다. 더불어 ‘거친사유도 미세사유도 없는 삼매(無尋無伺三昧)’는 두 번째 선정(第二禪) 이상의 단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거친사유는 없고 미세사유만 지닌 삼매(無尋唯伺三昧)’는 이들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의 중간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대의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 선정(五禪)이라는 별도의 체계를 내 세우기에 이른다. 즉 첫 번째 선정(初禪)을 ‘거친사유와 미세사유가 동시에 존속하는 상태’로, 두 번째 선정(第二禪)을 ‘미세사유만이 있는 상태’로, 세 번째 선정(第三禪) 이상의 경지는 ‘양자 모두가 소멸된 상태’로 재정립한다.¹⁸⁾ 이러한 아비담마의 ‘5가지 선정’은 니카야에 나타나는 ‘3가지 삼매’와 ‘4가지 선정’이 절충 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구체적 사례이다.

이상과 같이 삼매의 의의와 체계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소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있는 그대로의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삼매가 요구된다. ② 삼매와 선정은 절충 가능한 내용을 지닌다. ③ 삼매와 선정은 깊이에 따라 ‘3가지 삼매’라든가 ‘4가지 선정’ 따위의 일련의 체계로 분류된다. ④ ‘3가지 삼매’와 ‘4가지 선정’에서 거친사유(尋)와 미세사유(伺)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그것에 속한다. ⑤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는

18) 이러한 아비담마의 선정체계는 초기불교의 ‘4가지 선정’에서 첫 번째 선정을 2가지로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선정은 위치 상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관련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거친사유(尋)·미세사유(伺)·기쁨(喜)·즐거움(樂)·하나됨(一境性)이 수반되는 첫 번째 선정(初禪)에 속한 이로운 마음이 있고, 미세사유·기쁨·즐거움·하나됨이 수반되는 두 번째 선정(第二禪)에 속한 이로운 마음이 있고, 기쁨·즐거움·하나됨이 수반되는 세 번째 선정(第三禪)에 속한 이로운 마음이 있고, 즐거움·하나됨이 수반되는 네 번째 선정(第四禪)에 속한 이로운 마음이 있고, 평정(捨)·하나됨이 수반되는 다섯 번째 선정(第五禪)에 속한 이로운 마음이 있다(vitakkavicārapītisukhekaggatāsahitarī paṭhamajjhānakusalacittarī, vicārapītisukhekaggatāsahitarī dutiyajjhānakusalacittarī, pītisukhekaggatāsahitarī tatiyajjhānakusalacittarī, sukhekaggatāsahitarī catuttajjhānakusalacittarī, upekkhekaggatāsahitarī pañcamajjhānakusalacittarīceti).” Abhidhammatthasaṅgaha, p.3; 대립스님·각묵스님 공동 번역 및 주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초기불전연구원, 2002, pp.149-158 참조.

깊은 선정의 상태에서는 소멸되는 과도적인 특징을 지닌다. ⑥ 그러나 이들 양자는 삼매의 상태에서 어엿하게 역할을 하는 마음요소(心所, *cetasika*)들이 다.

III. ‘첫 번째 선정(初禪)’의 의의

이상과 같이 삼매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선정(初禪) 자체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첫 번째 선정의 의의와 관련하여, 맛지마니카야(Majjhimanikāya)의 『Mahāsaccakasutta』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내용이 등장한다.

나는 알게 되었다. 아버지 석가족이 경작하는 밭고랑의 염부수 나무 아래에 앉아,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롭지 않은 법으로부터 벗어나, 거친사유(尋)와 미세사유(伺)를 지닌, 떠남으로부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첫 번째 선정(初禪)’에 도달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는 바, ‘실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 것이다’고 악기베싸나여, 그러한 나에게 기억에 뒤따르는 의식이 생겼다. ‘바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고¹⁹⁾

인용문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극단적인 고행을 포기하면서 떠올린 생각을 묘사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실로 그것(=初禪)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는 언급이다. 이 구절은 이전에 행했던 여타의 수행법과 차별성을 지닌 부처님 자신만의 방법이 최초로 자각되

19) “*abhijānāmi kho paṇāhaṃ pitusakkassa kammante sītāya jambucchāyāya nisinno vivicc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 -khaṃ paṭhamam jhānaṃ upasampajja viharitā. Siyā nu kho eso maggo bodhāyāti. Tassa mayhaṃ aggvessana satānūsāriṇīññaṃ ahoṣi: esova maggo bodhāyāti.*” MN. vol.1. p.246;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앞의 발표문, pp.20-21 재인용.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대목에 뒤이어 계속되는 해당 경문에는 ‘4가지 선정(四禪)’ 전체가 등장하며, 그들 ‘4가지 선정’을 순차적으로 체험하는 속에서 ‘3가지 지혜(三明)’가 발현된다는 내용이 기술된다.²⁰⁾ 따라서 첫 번째 선정을 포함한 ‘4가지 선정’ 모두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²¹⁾ 그러나 『Mahāsaccakasutta』 전체에서 “바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는 수식이 따라 붙는 경우는 첫 번째 선정이 유일하다.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언급은 2회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

필자는 바로 여기에서 초기불교 수행법 고유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정의 경지를 완성한 연후에야 깨달음이 가능한 수행법이라면 그것은 다분히 수정주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초기불교 내에서 수정주의는 고행주의와 마찬가지로 극복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선정과 같은 낮은 단계의 삼매 체험만으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선정에서 깨달음이 가능한 근거는 어떠한가.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에 의한 위빠짜나(觀) 수행에 다시금 주목한다. 즉 첫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행해지는 위빠짜나의 통찰 수행을 그 해답으로 내세운다. 관련 문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Mahāsaccakasutta』에 나타나는 수행 체험을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첫 번째 선정(初禪) ⇒ 두 번째 선정(第二禪) ⇒ 세 번째 선정(第三禪) ⇒ 네 번째 선정(第四禪) ⇒ 전생의 거처를 기억하는 지혜(宿主隨念智) ⇒ 하늘의 눈을 가진 지혜(天眼智) ⇒ 번뇌를 소멸한 지혜(漏盡智)가 그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필자는 반드시 이러한 ‘4가지 선정’ 모두를 거치지 않고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갖는다.

21) 필자는 ‘4가지 선정’ 모두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구절은 부처님께서 ‘네 번째 선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부의 화설에 대해 경전적 근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존자여, 어떻게 해서 삼매수행의 닦음과 행함이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으로 나아가는가? 존자여, 이와 같은 [삼매 안에서] 비구에게 감지되는 것(viditā)으로서 느낌(受)이 일어난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느낌이] 드러난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느낌이] 사라진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지각(慧)이 일어난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지각이] 드러난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지각이] 사라진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거친사유(尋)가 일어난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거친사유가] 드러난다. 감지되는 것으로서 [거친사유가] 사라진다. 존자여, 이와 같이 삼매수행의 닦음과 행함이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으로 나아간다.²²⁾

인용문의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은 곧 위빠싸나를 의미한다.²³⁾ 즉 인용된 내용은 위빠싸나를 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

22) “Katamā cāvuso samādhībhāvanā bhāvitā bahulikāṭā satisampajaññāya sarāvattati? Idhāvuso bhikkhuno viditā vedanā uppajjanti. Viditā upaṭṭhahanti, viditā abbhatharṇ gacchanti, viditā saññā uppajjanti, viditā upaṭṭhahanti, viditā abbhatharṇ gacchanti. Viditā vitakkā uppajjanti, viditā upaṭṭhahanti, viditā abbhatharṇ gacchanti. Ayaṃ āvuso samādhībhāvanā bhāvitā bahulikāṭā satisampajaññāya sarāvattati”. DN. vol.3. p.223; AN. vol.2. p.45; AN. vol.4. p.168 cf.; SN. vol.5. pp. 180-181 cf.; Ps. vol.1. pp.178-179 cf. 등,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앞의 발표문, p.13 재인용.

23)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의 수행이란 다른 아닌 사념처의 위빠싸나를 의미한다. 그 전형이 될 만한 문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으로 머물러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마음지킴(念)으로 머문다는 것은 어떠한가? 이 [가르침] 안에서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 대해 몸을 따라가며 보면서(身隨觀) 머문다. 열렬함과 알아차림과 마음지킴을 지니고서, 세간에 관련한 탐욕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느낌에 대해 느낌을 따라가며 보면서(受隨觀) 머문다. 열렬함과 알아차림과 마음지킴을 지니고서, 세간에 관련한 탐욕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마음에 대해 마음을 따라가며 보면서(心隨觀) 머문다. 열렬함과 알아차림과 마음지킴을 지니고서, 세간에 관련한 탐욕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법에 대해 법을 따라가며 보면서(法隨觀) 머문다. 열렬함과 알아차림과 마음지킴을 지니고서, 세간에 관련한 탐욕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것이 비구가 마음지킴으로 머문다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알아차림(知)으로 머문다는 것은 어떠한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나 물러날 때 알아차림으로 행한다. 앞을 보거나 주위를 볼 때 알아차림으로 행한다. 구부리거나 펼 때 알아차림으로 행한다.... (Bhagavā etadavoca. Sato bhikkhave,

김(受)·지각(想)·거친사유(尋) 따위가 감지되는(vidita)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본 인용문은 삼매수행(samādhībhāvanā)으로부터 진행되는 그것을 그려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경문을 통해 ‘삼매를 내용으로 하는 사마타’와 ‘마음지킴과 알아차림에 의한 위빠싸나’가 동시에 행해질 수 있는 근거가 일차적으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선행 연구물에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내용들이 전형적인 사념처의 위빠싸나 경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 언급한 적이 있다.²⁴⁾ 즉 『Mahāsatipaṭṭhāna-Suttanta(大念處經)』에 나타나는 바, “..... 몸(身)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법’을 따라가며 보면서(隨觀) 머문다. 혹은 몸에 관련하여 ‘사라지는 법’을 따라가며 보면서 머문다. 혹은 몸에 관련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따라가며 보면서 머문다....”는 언급이 그것이다.²⁵⁾

bhikkhu vihareyya sampajāno. Ayaṃ vo amhākaṃ anusāsani. Kathaṇca bhikkhave, bhikkhu sato hoti: idha bhikkhave,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Cīte citt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Dhammesu dhamm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 abhijjhādomanassaṃ. Evaṃ kho bhikkhave, bhikkhu sato hoti. Kathaṇca bhikkhave, bhikkhu sampajāno hoti: idha bhikkhave, bhikkhu abhikkante paṭikkante sampajānakāri hoti. Ālokite vilokite sampajānakāri hoti. Sammiñjite pasārite sampajānakāri hoti....”). SN. vol.5. p.142; 이와 같이 Nikāya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마음지킴(念)과 알아차림(知)이 곧 사념처의 위빠싸나 수행임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선행 연구물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등식을 발표한 적이 있다. 즉 “사념처(四念處) ⇔ 몸 등을 따라가며 보는 법(隨觀) ⇔ 몸 등에 대한 마음지킴과 알아차림 ⇔ 몸 등을 매개로 한 법에 대한 관찰 ⇔ 18가지 따라가며 보는 법(十八隨觀) ⇔ 위빠싸나(觀)”가 그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마음지킴’과 ‘사념처’ 그리고 ‘위빠싸나’ 등은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지닌다. 임승택, 「마음지킴(sati)의 위상과 용례에 대한 재검토」, 『제7기 구산논문 발표회 자료집』, pp.6-9 참조.

24) 임승택, 「대념처경의 이해」,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근본불교 수행도량, pp.34-36; 「선정의 문체에 대한 고찰」, 앞의 발표문, pp.11-15 등.

25) “.... samudayadhammānupassī vā kāyasmim viharati, vayadhammānupassī vā

더불어 사리불 존자의 위빠싸나 수행에 관련하여 맞지마니카야의 『Anupadasutta』에 기술된 “..... 그에게 ‘감지되는 것(viditā)’으로서 그들 법이 일어난다. ‘감지되는 것’이 드러난다. ‘감지되는 것’이 사라진다....”는 내용 또한 그러하다.²⁶⁾ 특히 『Anupadasutta』에서는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3가지 항목 이외의 ‘감지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열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미세사유(伺)·기쁨(喜)·즐거움(樂)·하나된 마음(心—境性)·접촉(觸)·의도(思)·마음(心)·의욕(欲)·확신(勝解)·정진(精進)·마음지킴(念)·평정(捨)·마음냄(作意) 따위가 그것이다.

『Paṭisambhidāmagga』에 따르면 위의 인용문에서 거론된 느낌·지각·

kāyasmim viharati. samudaya vayadhammānupassī vā kāyasmim viharati..... ” DN. vol.2, pp.292.

- 26) 관련된 내용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사리뿔다는 보름 동안에 걸친 ‘순서에 따른 법에 의한 위빠싸나(anupadhadhammavipassanā)’를 수행하였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 안에서, 사리뿔따의 ‘순서에 따른 법에 의한 위빠싸나’란 이리하다. 비구들이여, 이 [가르침] 안에서, 사리뿔따는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롭지 않은 법으로부터 벗어나, 거친사유(尋)와 미세사유(伺)를 지닌, 떠남으로부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을 지닌 ‘첫 번째 선정(初禪)’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러한 ‘첫 번째 선정’에는 거친사유(尋)·미세사유(伺)·기쁨(喜)·즐거움(樂)·하나된 마음(心—境性)·접촉(觸)·느낌(受)·지각(想)·의도(思)·마음(心)·의욕(欲)·확신(勝解)·정진(精進)·마음지킴(念)·평정(捨)·마음냄(作意) 등의 법이 있는 바, 그들 법이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anupadavavatthitā honti). 그에게 ‘감지되는 것(viditā)’으로서 그들 법이 일어난다. ‘감지되는 것’이 드러난다. ‘감지되는 것’이 사라진다. 그는 이와 같이 알아차린다(evam pajānāti). ‘실로 이들 법은 나에게 있지 않다가 발생한 것이다. 있고 난 후 알게 된 것이다’라고.... (Sāriputto bhikkhave, addhamāsaṃ anupadhadhammavipassanaṃ vipassati. Tatridaṃ bhikkhave, sāriputtassa anupadhadhammavipassanāya hoti. Idha bhikkhave, sāriputto vivicc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jaṃ pītisukh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ajja viharati. Ye ca paṭhame jhāne dhammā vitakko ca vicāro ca pīti ca sukhaṃ ca cittekkaggatā ca phasso vedanā saññā cetanā cittaṃ chando adhimokkha viriyaṃ sati upekkhā manasikāro. Tyāssa dhammā anupadavavatthitā honti, tyāssa dhammā viditā uppajjanti, viditā upaṭṭhahanti, viditā abbatthaṃ gacchanti. So evaṃ pajānāti: evaṃ kira me dhammā ahutvā sambhonti, hutvā paṭiventī’ti.... ” MN. vol.3. p.25.

거친사유는 위빠싸나의 통찰 대상으로서 진리를 깨닫기 위한 매개가 된다. 즉 “무명(avijja)의 일어남으로부터 느낌·지각·거친사유]의 일어남이 있다고 하는 조건(paccaya)에 의한 일어남(samudaya)의 의미로 느낌·지각·거친사유]의 일어남이 감지된다..... 무명의 소멸로부터 느낌·지각·거친사유]의 소멸이 있다고 하는 조건에 의한 소멸의 의미로 느낌·지각·거친사유]의 사라짐이 감지된다.... ”²⁷⁾는 형식으로 해설한다. 이러한 내용은 삼매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느낌 따위를 통해 ‘조건에 의한 일어남과 사라짐’이라는 ‘연기의 이법’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²⁸⁾

그런데 이들 느낌(受)·지각(想)·거친사유(壽) 중에서 맨 마지막의 ‘거친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 심리적 여건은, 앞 소절에서 살펴본 ‘3가지 삼매’의 경우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를 지닌 삼매(有壽有伺三昧)’에 한정된다. 더불어 ‘4가지 선정’에서는 ‘첫 번째 선정’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니카야의 삼매 체계에서 느낌·지각·거친사유 모두가 위빠싸나의 통찰 대상으로 상정될 수 있는 상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그것일 수밖에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거친사유는 언어적 현상(vacisaṅkhāra)을 이루는 마음요소로서, 두 번째 선정 이상의 단계에서는 소멸한다. 이러한 내용은 『Anupadasutta』에 나타나는 바, 두 번째 선정 이상의 경지에서는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현상들만이 감지된다(vidita)는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두 번째 선정 이상의 상태에서는 위의 인용문

27) “avijjāsamudayā vedanāsamudayo ti paccayasamudayaṭṭhena vedanāya uppādo vidīto hoti... avijjānirodhā vedanānirodho ti paccayanirodhaṭṭhena vedanāya atthaṅgamo vidīto hoti,... ” Ps. vol.1. pp.178-179.

28) 임승택, 『Paṭisambhidāmagga(無碍解道)의 수행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pp.94-103 참조

29) “비구들이여, 다시 사리뿔떠는 거친사유(壽)와 미세사유(伺)가 가라앉아, 안으로 고요해지고, 마음이 한곳에 고정되어, 거친사유도 없고 미세사유도 없는, 삼매로부터 생겨난 기쁨(喜)과 즐거움(樂)이 있는 두 번째 선정(第二禪)을 얻어 머문다. 그러한 ‘두 번째 선정’에는 안으로 고요해진 상태에서 기쁨(喜)·즐거움(樂)·하나된 마음

에 나타나는 느낌(受)과 지각(想)만이 포착 가능하다.³⁰⁾ 이러한 까닭에 그들 현상만을 관찰할 수 있는 선정의 상태는 그만큼 위빠싸나의 영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적 분별(thought, vitakkana)’이라든가 ‘논리적 추론(reasoning, ūhana)’과 같은 내면의 심리현상에 대한 통찰의 근거가 망실된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연구물에서 거친사유(尋)를 수반하는 첫 번째 선정이야말로 위빠싸나 수행을 가장 온당하게 뒷받침하는 심리 상태라 결론지었던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필자가 검색한 바에 따르면, 니카야 전체를 통틀어 거친사유(尋)를 수반하는 선정 혹은 삼매의 상태는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를 지닌 삼매(有尋有伺三昧)’·‘첫 번째 선정(初禪)’의 2가지 밖에 없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소년시절에 일찍이 경험하셨던 첫 번째 선정을 두고 “실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는 자각을 일으키셨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충분히 대비되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 진리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결코 필자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몇몇 연

(心—境性)·접촉(觸)·느낌(受)·지각(想)·의도(思)·마음(心)·의욕(欲)·확신(勝解)·정진(精進)·마음지킴(念)·평정(捨)·마음냄(作意) 등의 법이 있는 바, 그들 법이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에게 ‘감지되는 것(viditā)’으로서 그들 법이 일어난다. ‘감지되는 것’이 드러난다. ‘감지되는 것’이 사라진다..... (Puna ca param bhikkhave, sāriputto vitakkavicārānaṃ vūpasamā ajjhataṃ sampasādanaṃ cetaso ekodibhāvaṃ avitakkaṃ avicāraṃ samādhijaṃ pitisukhaṃ dutiy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Ye ca dutiye jhāne dhammā ajjhataṃ sampasādo ca pīti ca sukhaṃ cittaekaggatā ca phasso vedanā saññā cetanā cittaṃ chando adhimokkha viriyaṃ sati upekkhā manasikāro, tyāssa dhammā anupadavavathitā honti. Tyāssa dhammā viditā uppajanti, viditā upaṭṭhahanti, viditā abbatthataṃ gacchanti....)” MN. vol.3. p.25-26.

30) 느낌(受)과 지각(想)의 존재 여부가 문제시되는 선정은 ‘소멸하여 다한 선정(滅盡定)’과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선정(非想非非想處定)’이다. 따라서 느낌과 지각은 이들 2가지 선정의 아래 단계에만 관찰이 가능하다.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앞의 발표문, p.15 참조.

구자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최근의 주장도 아니다. 『Visuddhimagga』에는 ‘순수 위빠싸나(sukkhavipassanā)’에 의해 얻어지는 ‘나아감의 경지(道, magga)’를 위시하여, 그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 도달하는 나아감의 경지가 결국은 첫 번째 선정에 속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³¹⁾

동일한 맥락에서 비구 보리(Bhikkhu Bodhi)도 순수 위빠싸나 수행자가 ‘나아감과 결과(道果, magga-phala)’에 도달할 때의 심리적 상태를 첫 번째 선정의 그것과 동일한 지평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³²⁾ 더불어 아비담마의 전통적인 사유체계에서는 첫 번째 선정으로부터 다섯 번째 선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역에서 ‘나아감과 결과’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설한다.³³⁾ 이러한 후

31) “ 그들 [장노들의] 주장은 그러한 이전의 [선정으로부터] 벗어나 행하는 위빠싸나가 [7가지 깨달음의 요소(七覺支) 등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관련하여 이러한 ‘차체에 따른 말씀(次第法問)’이 있다. 순수 위빠싸나 수행자가 위빠싸나를 결정하여 선정(定)을 얻은 자에게 속한 선정(禪)의 요인을 닦지 않고서 도달한 ‘나아감의 경지(道)’도, 첫 번째 선정의 요인을 닦고서 도달한 ‘나아감의 경지’도, 잡다한 현상에 대해 체험하고서 도달한 ‘나아감의 경지’도 다름 아닌 첫 번째 선정(初禪)에 속한다. [이들 3가지 유형의 ‘나아감의 경지’ 모두에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七覺支)와 8가지 나아감의 요소(八道支)와 5가지 선정의 요소(五禪支)가 있다(... tesam pi vādesu āyārī pubbabhāgavuttāhānagāminī vipassanā niyameti yevā ti veditabbā. tatr’ āyārī anupubbikathā:- vipassanāniyamena hi sukkhavipassakassa uppannamaggo pi samāpattilābhino jhānarī pādakarī akatvā, uppannamaggo pi paṭhamajjhānarī pādakarī katvā, pakīṇakasaṅkhāre sammasitvā uppāditamaggo pi paṭhamajjhānikā va honti. sabbesu satta bojjhaṅgāni aṭṭha maggaṅgāni pañca jhānaṅgāni honti.)” Vism. pp.666-667.

32) “Those who develop insight without a basis of jhāna are called practitioners of bare insight(sukkhavipassaka). When they reach the path and fruit, their path and fruition cittas occur at a level corresponding to the first jhāna.... ” Bhikkhu Bodhi,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 The Abhidhammattha Saṅgaha*, Srilanka: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Kandy, 1993. pp.73.

33) “거친사유·미세사유·기쁨·즐거움·하나됨이 함께 있는 첫 번째 선정(初禪)에 의한 예류로 나아감(預流道)에 속한 마음이 있고, 미세사유·기쁨·즐거움·하나됨이 함께 있는 두 번째 선정(第二禪)에 의한 예류로 나아감에 속한 마음이 있고, 기쁨·즐거움·하나됨이 함께 있는 세 번째 선정(第三禪)에 의한 예류로 나아감에 속한

대의 해설들은 니카야의 첫 번째 선정(初禪)에 착안하여 진리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필자의 입장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IV. ‘첫 번째 선정’과 ‘번뇌(āsava)’의 소멸

마지막 순서로서, 첫 번째 선정이 ‘번뇌의 소멸(āsava-khaya)’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확인했듯이 첫 번째 선정은 위빠사나의 실천을 위한 온당한 심리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삼매에 속한다. 따라서 열등한 삼매라는 편견에 의해 ‘번뇌의 소멸’이라든가 ‘열반의 증득’과는 무관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도 번뇌의 소멸과 열반의 증득이 가능하다. 맞지마니카야의 『Mahāmāluṅkyasutta』에 나타나는 다음의 내용이 바로 그러하다.

마음이 있고, 즐거움·하나됨이 함께 있는 네 번째 선정(第四禪)에 의한 예류로 나아감에 속한 마음이 있고, 평정·하나됨이 함께 있는 다섯 번째 선정(第五禪)에 의한 예류로 나아감에 속한 마음이 있다. 이들 5가지를 예류로 나아감에 속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일래로 나아감(一來道)에 속한 마음이 있고, 불환으로 나아감(不還道)에 속한 마음이 있고, 아라한으로 나아감(阿羅漢道)에 속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20가지 나아감(道)에 속한 마음이 있다. 마찬가지로 결과(果)에 속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세간으로부터 벗어남의 마음은 모두 40가지가 된다. (kathamekūnanavutividharā cittaṃ ekavīśasataṃ hoti? vitakkavicārapīṭisukhekaggatāsahitaṃ paṭhamajjhānasotāpattimaggacittaṃ, vicārapīṭisukhekaggatāsahitaṃ dutiyajjhānasotāpattimaggacittaṃ, pīṭisukhekaggatāsahitaṃ tatiyajjhānasotāpattimaggacittaṃ, sukhakkaggatāsahitaṃ catutthajjhānasotāpattimaggacittaṃ, upekkhekaggatāsahitaṃ pañcama-jjhānasotāpattimaggacittañceti imāni pañcapi sotāpattimaggacittāni nāma; tathā sakadāgāṃimaggānāgāṃimaggārahattamaggacittañceti samavīsati maggacittāni; tathā phala-cittāni ceti samacattāṭīsa lokuttaracittāni bhavantīti)” Abhidhammatthasaṅgaha, pp.4-5; 대림스님·각목스님, pp.176-181 참조.

아난다여, 여기에서 비구는 집착을 버리고, 이롭지 않은 법을 제거하여, 몸에 관련된 모든 사악함을 가라앉힌다. [그리하여]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롭지 않은 법으로부터 벗어나, 거친사유와 미세사유를 지닌, 떠남으로부터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을 지닌, 첫 번째 선정(初禪)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는 바로 거기(初禪)에서 물질현상(色)에 이르고, 감수작용(受)에 이르고, 지각작용(想)에 이르고, 형성작용(行)에 이르고, 의식작용(識)에 이른다. 그들 법에 대해 무상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죄악으로, 병으로, 다른 것으로, 깨지는 것으로, 공으로, 무아로 돌이켜 관찰한다(samanupassati). 그는 그들 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한다. 그는 그들 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난 후 죽지 않음의 계(不死界)로 마음을 모은다. 모든 형성력(行)을 그치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갈애를 소멸하고, 탐냄을 떠나고, 멸진하여, 그와 같이 선하고 수승한 열반[으로 마음을 모은다.] 그는 거기(初禪)에 서서 번뇌(漏)의 소멸을 얻는다. 만약에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법에 의한 애착과 법에 대한 기쁨을 지니고서 5 가지 열등한 결박의 요인(五下分結)을 제거하여 훌륭한 존재(化生)로 태어난다.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는 존재(不還)가 되어 그 세계에서 바로 반열반에 든다.....

다시, 아난다여, 다른 비구는... 두 번째 선정(第二禪)에... 세 번째 선정(第三禪)에... 네 번째 선정(第四禪)에... 공간에 걸림이 없는 경지(空無邊處)에... 의식에 걸림이 없는 경지(識無邊處)에... 아무 것도 없는 경지(無所有處)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는 바로 거기(無所有處)에서 감수작용에 이르고, 지각작용에 이르고, 형성작용에 이르고, 의식작용에 이른다. 그들 법에 대해 무상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죄악으로, 병으로, 다른 것으로, 깨지는 것으로, 공으로, 무아로 돌이켜 관찰한다(samanupassati). 그는 그들 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한다. 그는 그들 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 난 연후에 죽지 않음의 계(不死界)로 마음을 모은다. 모든 형성력(行)을 그치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갈애를 소멸하고, 탐냄을 떠나고, 멸진하여, 그와 같이 선하고 수승한 열반[으로 마음을 모은다.] 그는 거기(無所有處)에 서서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 만약에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법에 의한 애착과 법에 대한 기쁨을 지니고서 5 가지 열등한 결박의 요인을 제거하여 훌륭한 존재로 태어난다.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는 존재로서 그 세계에서 바로 반열반에 든다..... 34)

34) "Idh' Ānanda bhikkhu upadhivivekā akusalānaṃ dhammānaṃ pahānā sabbaso

인용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선정을 위시한 7가지 선정의 상태에서 무상(aniccato)으로 혹은 고통(dukkhato)으로 돌이켜 관찰하여 (samanupassati)³⁵⁾ 번뇌의 소멸을 얻는다(āsavānaṃ khayam pāpuṇāti)는 것

kāyaduṭṭhullānaṃ paṭipassaddhiyā vivicceva kāmehi vivicca akusalehi dhammehi savitak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ītisukkaṃ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So yadeva tattha hoti rūpagataṃ vedanāgataṃ saññāgataṃ saṅkhāragataṃ viññāgataṃ. Te dhamme aniccato dukkhato rogato gaṇḍato sallato aghato ābādhato parato palokato suññato anattato samanupassati, so tehi dhammehi cittaṃ paṭivāpeti. So tehi dhammehi cittaṃ paṭivāpetvā amatāya dhātuyā cittaṃ upasaṃharati. Etaṃ santaṃ etaṃ paṇītaṃ yadidaṃ sabbasaṅkhārasamatho sabbūpadhipaṭinissaggo taṇhakkhayo virāgo nirodho nibbānanti. So tattaṭṭhito āsavānaṃ khayam pāpuṇāti. no ce āsavānaṃ khayam pāpuṇāti. Teneva dhammarāgena tāya dhammanandiyā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ññojanānaṃ parikkhayā opapātiko hoti tattha parinibbāyī anāvattidhammo tasmā lokā.....

Puna ca paraṃ ānanda bhikkhu.... dutiyarī jhānaṃ.... tatiyarī jhānaṃ.... catuttharī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akāsānañcāyatanam.... viññānañcāyatanam.... ākīñcaññāyatanam upasampajja viharati. So yadeva tattha hoti vedanāgataṃ saññāgataṃ saṅkhāragataṃ viññāgataṃ te dhamme aniccato dukkhato rogato gaṇḍato sallato aghato ābādhato parato palokato suññato anattato samanupassati, so tehi dhammehi cittaṃ paṭivāpeti. So tehi dhammehi cittaṃ paṭivāpetvā amatāya dhātuyā cittaṃ upasaṃharati. Etaṃ santaṃ etaṃ paṇītaṃ yadidaṃ sabbasaṅkhārasa matho sabbūpadhipaṭinissaggo taṇhakkhayo virāgo nirodho nibbānanti. So tattaṭṭhito āsavānaṃ khayam pāpuṇāti. no ce āsavānaṃ khayam pāpuṇāti. Teneva dhammarāgena tāya dhammanandiyā pañcannaṃ orambhāgiyānaṃ saññojanānaṃ parikkhayā opapātiko hoti tattha parinibbāyī anāvattidhammo tasmā lokā..... ” MN. vol.1. pp.435-437.

인용문의 증반부와 후반부에는 “만약에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법에 의한 애착과 법에 대한 기쁨을 지나고서 5가지 열등한 결박의 요인(五下分結)을 제거하여 화려한 존재(化生)로 태어난다.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는 존재(不還)가 되어 그 세계에서 바로 반열반에 든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뒤따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각각의 선정 단계에서 얻어질 수 있는 번뇌의 소멸(āsavānaṃ khayam)에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35) 필자에 의해 ‘돌이켜 관찰하다’ 혹은 ‘돌이켜 생각하다’로 번역되는 말의 빨리 원어는 ‘samanupassati’이다. 이 용어는 ‘잘(sam-), ‘따라서(anu-), ‘본다(passati)’는 뜻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따라서 samanupassati는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선정은 그 이상의 단계에 속한 선정들과 비교할 때 별다른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멸진하여(nirodho) 열반(nibbāna)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필자는 인용문에서 거론된 7가지 선정과 관련하여, “위빠싸나는 ‘첫 번째 선정’을 걸쳐 ‘아무 것도 없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선행 연구물에서 이미 행한 적이 있다. 더불어 ‘9가지 선정(九次第定)’ 체계의 마지막 2가지에 해당되는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경지’와 ‘지각과 느낌의 소멸’ 상태에서는 위빠싸나를 행할 수 없고, 그러한 선정의 상태를 벗어난 연후에(vuttahahitvā) 돌이켜 관찰하는 것(samanupassati)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위의 인용문은 그러한 선행 연구물의 경전적 근거인 맛지마니카야의 『Anupadasutta』와 일맥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고의 『Mahāmāluṅkyasutta』에서 언급되는 선정의 종류는 ‘첫 번째 선정’에서부터 ‘아무 것도 없는 경지’까지의 7가지에 국한되며, 그러한 체험과 더불어 ‘돌이켜 관찰한다(samanupassati)’고 기술된다. 그리고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경지’와 ‘지각과 느낌이 소멸된 경지’는 논의에서 배제된다.

의 논평에서 김재성 선생이 지적했듯이 위빠싸나 원래의 의미에 상통하는 면이 있다. 본 소절의 인용문에 나타나는 용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필자가 검색한 바에 따르면, 4부 니까야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samanupassati’는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간주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용어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음의 문구는 본문에서 인용한 용례와 대비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듣지 못한 범부가 있어, 거룩한 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룩한 이의 법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법을 배우지 못해..... 물질현상(色)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라고 돌이켜 관찰한다. 감수작용(受)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라고 돌이켜 관찰한다.... (Idha bhikkhave assutavā puthujjano ariyānaṃ adassāvī ariyadhammassa akovido ariyadhamme avinīto,..... Rūpaṃ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samanupassati. Vedanaṃ ‘etaṃ mama, esohamasmi, eso me attā’ti samanupassati).” MN.vol.1, p.135 등.

그런데 Anupadasutta는 그들 나머지 2가지 선정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연후에 돌이켜 관찰한다고 해설한다.³⁶⁾ 즉 ‘9가지 선정(九次第定)’ 전체에 대해 언급을 하지만, “그러한 선정으로부터 마음지켜 벗어난 연후에 (tāya samāpattiyā sato vuṭṭhahitvā)... 돌이켜 관찰한다(samanupassati)... ”는 표현이 뒤따르는 경우는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경지’와 ‘지각과 느낌이 소멸된 경지’의 둘 뿐이다.³⁷⁾

따라서 첫 번째 선정(初禪)에서부터 아무 것도 없는 경지(無所有處)에 이르기까지는 그러한 체험이 진행되는 속에서 ‘돌이켜 관찰하는 것’이고, 마지막의 2가지 선정에서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연후에 ‘돌이켜 관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Mahāmālurūkyasutta』와 『Anupadasutta』에 나타나는 선정에 관련한 언급은 일관된 맥락을 지닌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은 첫 번째 선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마타와 위빠싸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원래의 주장을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 해준다. 이로써 지금까지 필자가 견지해온 입장은 다시 한번 명확한 경전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할 것이다.

V. 마치는 말

36) 『Anupadasutta』의 관련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리뿃따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無所有處)’를 넘어,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경지(非想非非想處)’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는 그 선정으로부터 마음지켜 벗어난다. 그는 그 선정으로부터 마음지켜 벗어난 연후에, 이전에 소멸되었고 변이되었던 법이 있는 바, 그들 법에 대해 돌이켜 관찰한다(akirīcaññāyatanaṃ samatikkamma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ṃ upasampajja viharati, so tāya samāpattiyā sato vuṭṭhahati. So tāya samāpattiyā sato vuṭṭhahitvā ye te dhammā atītā niruddhā vipariṇatā, te dhamme samanupassati-...)” MN. vol.3. p.28.

37) 임승택, 「선정의 문제에 대한 고찰」, 앞의 발표문, pp.13-15 참조.

필자의 주변에는 사마타와 위빠사나에 관련한 여러 이견들이 존재한다. “위빠사나 수행에서 초선의 중요성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³⁸⁾는 반론을 위시하여, “第四禪 이후에러야 진정한 의미의 위빠사나(Vipassanā)라 할 수 있다”³⁹⁾는 주장이 그러하다. 더불어 약간 다른 각도이지만, “본삼매(appanāsamādhi)에 들었을 때는 위빠사나란 불가능하다”⁴⁰⁾는 아비담마적 견해 또한 그러한 이견들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들 모두는 나름의 문헌적 근거에 입각해 있는 까닭에 얼마간의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미 확인했듯이, 니카야에 나타나는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는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동시에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즉 첫 번째 선정(初禪)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경지(無所有處)에 이르기까지 위빠사나의 실천은 가능하다. 더불어 첫 번째 선정은 위빠사나의 실천에서 중요한 여건이 되는데, 이 경지는 곧 아비담마의 본삼매(appanāsamādhi)에 해당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 이견에 대해 관점을 달리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제II장에서 필자는 통찰의 지혜(paññā)가 발현하기 위해 삼매의 상태(samāhito)가 요구된다는 언급으로부터 본 고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러한 삼매의 상태로서 첫 번째 선정(初禪)을 지목하여, 이것을 특징 지우는 거친사유(尋)를 중심으로 논술을 전개하였다. 문헌 상에 나타나는 바, 거친사유(vitakka)는 생각(thought, vitakkana)이나 추리(reasoning, ūhana)의 의미와 통하며, 언어적 현상(vacisaṅkhāra)에 포섭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거친사유는 선정의 요소(禪支, jhāna-aṅga)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본 고를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된다.

제III장에서는 그러한 거친사유를 특징으로 하는 첫 번째 선정(初禪)의 의미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삼매수행

38) 김제성, 『불교학연구회 제13차 학술발표회자료집』 p.26 등 인용.

39) 조준호,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자료집』 근본불교수행도량, 2002, p.69 인용.

40) 각목스님, 『불교학연구회 제17차 학술발표회자료집』 p.52 등 인용.

(samādhībhāvanā)으로부터 행해지는 위빠싸나의 양태에 대해 살펴 보았고,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 문헌들에서 한결같이 거친사유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 니카야 전체를 통틀어 거친사유(麁)가 존속할 수 있는 사마타의 지평은 첫 번째 선정이 유일하다.

따라서 거친사유를 위빠싸나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삼매의 상태는 첫 번째 선정입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이와 관련된 맥락의 내용들이 『Mahāsatiṭṭhānasuttanta』라든가 『Anupadasutta』 그리고 『Paṭisambhidāmagga』의 『Ānāpānakathā』 등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이들 문헌은 위빠싸나의 경전적 근거로서 널리 주목되어 왔다는 점에서 필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뒷받침 해준다.

제IV장은 이상과 같은 본 고의 논지에 대한 전체적인 검증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거기에서 필자는 『Mahāmālurīkyasutta』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첫 번째 선정의 상태에서도 번뇌의 소멸(āsavānaṃ khayam)을 얻는 것이 가능하며, 혹은 돌아오지 않는 이(不還, anāvattidhammo)가 되어 완전한 열반(般涅槃, parinibbāyi)에 이르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 대목은 첫 번째 선정에 대해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전거이다.

삼매라든가 선정, 즉 사마타의 단계들은 들뜸(掉舉)이 가라앉은 정도를 나뉘는 체계로써 설정해 놓은 것이다. 반면에 위빠싸나는 진리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마타와 위빠싸나는 나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마음상태’와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관찰의 행위’는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한 까닭에 이들 양자는 얼마간 함께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궤도를 달리한다.

사마타와 위빠싸나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에 비유할 수 있겠다. 예컨대 마음이 들뜬 산만한 상태에서는 안팎의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그러한 연후에 주변의

사물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안정이 지나쳐 한 방향으로 몰입되고 나면 기민한 알아차림을 기대할 수 없다. 집중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마음현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그러한 집중을 의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기 쉬운 집착 또한 간과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고원한 삼매 체험 못지 않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심리현상 또한 중요한 관찰 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 위빠싸나의 실천과 관련하여 첫 번째 선정(初禪)을 거듭 주목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는 시점에서,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첫 번째 선정보다 깊은 삼매를 부정하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잠재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삼매 또한 적극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삼매라는 현상에 얽매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행은 더 이상 불교적이라 할 수 없다. 본 고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주제어

첫 번째 선정(初禪, pathamajjhāna), 거친사유(尋, vitakka), 미세사유(伺, vicāra), 언어적 현상(語行, vacīsaṅkhāra), 언어적 분별(vitakkana), 3가지 삼매(三三昧), 4가지 선정(四禪), 돌이켜 관찰하다(samanupassati), 위빠싸나(觀, vipassanā), 사마타(止, samatha).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first jhāna

Lim Seung-taek

This paper researchs on the first jhāna, that has been already discussed to some extent in my preceding study; A Study on Jhānas, in *Bul Gyo Hak Yeon Gu*, Vol. 5., 2002. I think this work has a characteristic to intensify my original assertion on the first jhāna with the conformity of Nikāyas.

Therefore this work will play a part in the verification on the preceding study. My consistent standpoint is that the insight(vipassanā) and the serenity(samatha) should be a pair in the practice of meditation. The meditator would make the progress of meditation through these two functional elements.

Nevertheles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insight and the serenity. It is the insight that is continually required until the last goal. The serenity would be used as the supporter of the insight within limits. Therefore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essence of the early Buddhist practice theory lies in the insight.

When the meditator reaches the deep step of the serenity, his capacity of the insight will be reduced step by step. The serenity is to concentrate his/her mind on one point, that is opposed to the capacity of the insight. That is why the insight would go with the serenity only for some time, and that the first jhāna is the main area

to practice the insight.

Nikāyas say that vitakka and vicāra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first jhāna, but these two are not found in the other stages of the serenity. These essential elements would be distinctive objects of the insight as well. As a result, it support the fact that the first jhāna is the main area to practice the insight.

I insist these points on the basis of *Anupadasutta*, *Mahāmālunīkya-sutta*, *Ānāpānakathā* of *Paṭisambhidāmagga* etc. Besides, an analogous content to these Suttas is found out *Mahāsatipaṭṭhānasuttanta*. These Nikāyas strengthen my thought on the meaning of the first jhāna.